



# ‘상징성’ 통해 수행숨결 생생히

1600여년 한국불교 역사 곳곳에서 ‘깨달음의 기동’이 됐던 역대 고승들. 이들의 탄생설화는 어떨까? 룸비니 동산에서 당차게 깨달음을 선언을 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이야기처럼, 오늘날을 사는 불자들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줄까? 역대 고승의 탄생이야기에는 어머니의 태몽이 있다. 하지만 그 태몽은 어느 태몽과 다르다. 중생을 제도할 성인의 탄생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나라 고승들의 탄생이야기와, 그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자.

## ▶부모님의 범상치 않은 태몽

한국 고승의 탄생설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모친의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다. 덕숭문중의 큰 산맥 금오 선사(金烏:1896~1968)의 어머니는 자신의 태몽이 범상치 않음을 예감하고 일찌감치 아들의 출가를 예견했다. 꿈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품고 있던 그릇을 내어주면서 “열지 말고 가지고 가라”고 했다. 이후 풀아와 그릇 뚜껑을 열어보니 하얀 학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학이 갑자기 날더니 오색이 반짝이는 영롱한 짐승으로 변해 기어올라 왔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놀라 꿈에서 깨어났고 그 후 금오 선사를 낳았다. 아버지의 사랑도 있다. 자장 율사(慈藏?-?)의 아버지 무림(茂林)은 늦도록 아들이 없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상 앞에 나아가 “만약 아들을 낳으면 바쳐서 진리의 바다로 갈 수 있는 나무 또는 징검다리라 되도록 하겠다”며 자식 낳기를 축원했다. 이후, 벌이 풀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어머니가 임신했고, 부처님오신날 자장을 낳았다.

## ▶꿈에서 스님 만나 탄생한 고승들

고승들의 탄생설화에서 기인(奇人)이 많이 나온다. 특히 스님들이 주로 등장한다. 진감 국사(眞鑑:774~850)의 탄생 이야기에서는 인도스님이 나온다. 하루는 인도스님이 찾아와 “당신의 자식이 되겠습니까”하며 유리병을 주고 갔다. 그리고 진감 국사를 잉태했다고 전한다. 지증 국사(智證:824~882)의 탄생설화에는 거인이 나온다. 어머니의 꿈에 거인이 와서 “나는 부처님으로서 말법 세상에 스님이 되었는데, 성냄으로 인해 응의 과보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과보가 끝나 다시 스님이 되어야 하겠기에 좋은 인연에 의탁, 자비로운 가르침을 크게 펴기를 원합니다”고 말한다. 그 뒤로 아이를 배어 거의 4백 일이 되었는에도 낳지 못하다가 부처님오신 날 아침에야 지증 국사를 출산했다고 한다. 또 독립운동가 용성 선



사(龍峽:1846~1940)도 어머니 손짜가 어느 한 스님이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용성 스님을 낳았다고 전한다.

## ▶성스러운 상징물도 등장

탄생설화에 등장하는 상징물에서도 고승이 탄생할 것이라는 암시가 주어진다. 별, 해, 달, 새, 오색 구름 등이 주로 나온다. 먼저 ‘별’의 경우, 원효 스님(元曉:617~686)의 탄생설화가 유명하다. 신라 원효 스님의 어머니는 별이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 뒤, 태기를 느꼈고 해산할 무렵 다섯 가지 색의 구름이 땅을 덮는 가운데 아이를 낳았다고 전한다. ‘해’와 ‘달’이 언급되는 사례도 있다. 신라에 불교를 처음 알린 아도 화상(阿度:357~?)의 설화에서는 어머니 고씨가 4월 초파일에 해와 달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아도를 잉태했다고 전한다. 또 태고 왕사(太古:1301~1382)도 어머니 정씨가 동글고 밝은 달이 품 안으로 날아드는 꿈을 꾸고 태고 왕사를 잉태했다. 황금 빛 또는 푸른 빛 새들도 등장하는 탄생설화도 있다. 나옹 왕사(懶翁:1320~1376)의 어머니는 꿈에 황금빛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머리를 꼬며 알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품 안을 들어오는 것을 본 뒤로 태기가 있었다고 전한다. 이외 어머니가 우물 속의 오이를 먹고 태어났다는 도선 국사(道詵:827~898)와, 고헤인 전남 불거촌에 3년간 가뭄이 들자, 동네 사립들이 ‘세상에 드문 인물이 탄생했다’는 말을 들으며 태어나 이적을 많이 행한 진묵 조사(眞默:1562~1633) 탄생설화도 흥미롭다. 김철우 기자

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탄생설화 자체가 고승의 삶과 사상을 풀이해낼 ‘암호문’이 되는 셈이다. 지난 1980년부터 한국 역대고승 24명의 행장을 소설로 쓴 <고승열전>의 저자 윤경광 작가는 “고승들의 탄생설화는 언뜻 보기에 황당하고 미신적인 부분이 적지 않지만, 설화가 제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잘 짚어내면 한 수행자의 삶을 읽어내는 정보의 보고(寶庫)가 된다”며 “제가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탄생설화를 통해 역대 고승들의 숨겨진 수행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동국대 교양설 불교학과 교수는 “고승 탄생설화는 추상적인 모습의 부처님이 아닌 구체적으로 고승이란 수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부처님을 대신하는 역할로 고승의 탄생설화가 강조된 만큼, 설화 내용을 단순히 글귀 뜻풀이에 그치지 말라”고 당부한다. 고 교수는 특히 “각각한 현대사회를 사는 재가불자들이 고승들의 탄생설화를 통해 선지식에 대한 ‘살아 있는 존경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설화의 상징성이 시공을 초월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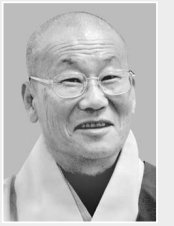
## 탄생설화, 그 의미는?

### “수행자 삶 읽어내는 정보의 보고”

고승들의 탄생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 우선 이들의 탄생설화는 출가 전 가정사, 고승들의 출가 동기, 일생 동안 걸어온 구도여행 등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치열한 자기 수행의 첫 출발을 탄생설

## 싯다르타와 윤희

호진 스님 (경주 기림사)



## 부처되면 생사 문제 해결

모든 존재(衆生)는 죽으면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에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나게 되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그곳이나 다른 세상에 태어난다. 죽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태어난 것은 죽음을 말한다. 중생은 여러 세계(3계 6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삶과 죽음을 되풀이 한다. 이것이 윤회다. 윤회의 원리는 간단하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짓는 모든 업(業)은 틀림없이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업은 한 생 뿐만 아니라 여러 생에 작용한다. 전생에 지은 업은 현생을 만들고, 현생에서 짓고 있는 업은 다음 생을 결정한다. 업이 남아있는 동안 윤회는 계속된다. 업은 과보를 초래하면서 소멸도 되지만, 다시 지은 업이 보태지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업은 계속되고 윤회도 멈

고로움이었고, 이 괴로움은 끝없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싯다르타는 뒷날, 이 당시의 사정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과거에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혼자 고요한 곳에서 명상(禪思)하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괴로움에 빠져있다. 그런데 모든 중생들은 생로병사와 그것이 의지하는 바를 참담하게 알지 못 한다’라고.<상승부경전:잡아함 285경> 끝내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가운데, 머리를 삭발하고 가사를 입고’ 출가 수행의 길을 떠났다.<중부경전, 26경>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정각(正覺)을 이루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냈던 것이다.

## 죽음은 태어남, 태어남은 죽음

## 사는 동안 지은 업 여러 생에 걸쳐 작용 싯다르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안내

추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法)를 깨달아 부처가 되면, 그 때부터 업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윤회의 바퀴는 멈추게 된다. 더 이상 태어남이 없게 되고, 태어남이 없으므로 죽음도 없게 된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었다. 그는 쉼 수조차 없는 오랜 세월 전에 선혜(善慧)라는 수행자였다. 연등(燃燈)이라는 부처님을 만나 자신도 연젠가 부처가 될 것을 서원했다. 선혜는 한량없는 세월동안 온갖 수행을 다 하면서 성불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도솔천에 태어났다. 그때의 이름은 호명(護明). 지금으로부터 2630년 전, 호명 보살은 카필라마스투국 왕비 마야부인의 몸을 통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싯다르타였다. 그가 태어나자 곧 아시타 선인(仙人)이 그의 관상을 보고 “이 아기는 장성하면 출가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고 예언했다. 싯다르타는 왕자의 몸으로 궁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풍요와 안락한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죽고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다시 죽어야 한다는 상황 앞에서 진정한 행복할 수는 없었다. 살아간다는 것은

정각한 한 순간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德行)은 이루 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해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중부경전, 36>. 그리고는 기쁨에 차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나는 이 집(육체)을 짓는 자를 찾으려고 여러 생(生)을 보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그동안 자꾸 되풀이 하였다. 이제 집을 짓는 자(慾望), 너를 찾았다. 너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제 모든 서까래(煩惱)는 부서졌고, 대들보(無明)는 산산 조각이 났다.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모든 욕망은 소멸되어 버렸다”<법구경, 153~154 계승> 싯다르타는 이처럼 윤회의 원인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원인을 제거하면 윤회의 바퀴가 멈추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싯다르타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발견한 진리와 수행방법을 널리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의 목표를 ‘성불하는 것’ ‘열반을 얻는 것’ ‘해탈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싯다르타는 우리를 윤회에서 벗어나게 인도해주는 안내자, 즉 ‘도사(導師)’가 된 것이다.

#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조계종 화 방 사**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

- 화방동산무료노인요양원 (120명)
- 지비의 도시락 제공 (250세대)
- 기정봉사원파견 서비스 (94세대)
- 안전지킴이 배지일 제공 (504세대)
- 남해지활후견기관 (참여자 90명)
- 히동청소년수련원 (연4만명 이용)
- 이동목욕 서비스 (52세대)

대한불교조계종 화방사 사부대중 일동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 임직원 일동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448번지(화방사)  
전화 055)863-5011~3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152-1(화방복지원)  
전화 055)863-2286

公益 大韓佛敎華嚴宗  
法入 大本山 藥師寺

회 주 화 담  
주 지 화 응  
부 주 지 대 휴  
신 도 일 동

財團 華嚴僧伽獎學財團  
公益 大韓佛敎華嚴宗獎學會

이사장 한상호 (화응)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3동 산 21  
대표전화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위찬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진동 208 금강빌딩 301호  
전화 : 02)730-0798-9 FAX : 02)722-3205

팔공산 동화사  
비로암 하안거 대중모집

모집대상  
신심있는 불자 선착순 10명

모집기간  
불기 2550년 5월 10일(음4월 13일)  
출입자제도 결제 받습니다.

문의처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비로암)  
TEL : 053)982-0223  
053)983-2248

제9교구본사 등 화 사 비 로 암  
감원 수련 합장

한국산 6년근 인삼 9중 9포한  
약 왕 사  
名品 紅 蔘  
(명 품 홍 삼)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홍삼 엑기스 판례”  
“자 죽여 판례”

약왕사 주지 정명 합장  
■ 제조원 : 약왕사 (왕솔농산)

전 화 054)371-6665  
팩 스 054)371-6675  
휴대폰 010-2513-6665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약왕사)